



동네 산책

제부도

서울에서 차로 한시간이면 갈 수 있는 제부도는 하루 두 차례씩 바닷길이 열리는 아름다운 자연과 경관을 자랑하는 섬이다. 썰물 때면 4~5m 깊이의 바닷물이 빠져나가 바다 속에 잠겨 있던 2.3km의 시멘트 포장 길이 모습을 드러나게 된다.



자동차로 이동하는 '제부도 동네산책' 코스

1. 제부도 해안도로 드라이브
2. 매바위
3. 제부도 해수욕장
4. 해안산책로(포토존)
5. 제부도 선착장 빨간등대



나도 역사해설가



*바닷길 산책로

제부도(濟扶島),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제부리에 있는 섬이다. 대부도와 헛갈리면 곤란하다. 조선 중기 이후 송교리와 이곳을 연결한 갯벌 고랑을 “어린아이는 업고 노인은 부축해서 건넌다”라는 뜻의 제약부경이라는 말에서 따와 제부리로 개칭했다고 한다. 이 섬은 만조때는 바닷물에 둘러싸여 완전한 섬이지만, 간조 때가 되면 섬과 육지 사이의 땅이 드러나면서 육지와 연결이 된다.

1980년대에 도로를 개설하여 자동차 통행도 가능해졌다. 도로를 높이지 않았기 때문에 만조 때는 바닷물에 도로가 침수되어 건널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당연히 도로가 침수되었을 때 차량이 들어가면 위험하므로, 송교리와 제부도 쪽 입구에 바닷길통제소가 설치되어 있고 침수 시간에는 바리케이트를 쳐서 통행을 차단한다.

통행 가능 시간에 대한 정보는 제부도 홈페이지나 국토부에서 운영하는 바다갈라짐앱(안드로이드)과 화성시에서 운영하는 ‘화성바다’ 어플(아이폰)(안드로이드)을 참고하면 좋다.



*매바위

(이미지 출처: www.제부도.kr)